

관광과 이벤트, 그리고 보행자전용지구 설정을 통한 구도심 활성화에 관한 연구*

Revitalization of the Old Urban Cores through Strategies of the Tourism, Event, and
Pedestrian District

鄭 鋼 煥** · 吳 德 成***

Jeong, Gang-Hoan · Oh, Deog-Seong

ABSTRACT

This paper investigates the strategies of revitalizing the old urban cores in Daejeon, Korea by adapting tourism, event, and pedestrian districts. Based on literature reviews of urban revitalization cases, especially in western Europe, twenty-seven items are selected and analyzed. Six factors are extracted from the twenty-seven items. The results show that the most important factor is development of art and cultural tourism products, age is the crucial factor in determining revitalization strategies, and software such as tourist packages, culture, art, and event is presented as effective way of revitalizing the old urban core in Daejeon. These results may help local developers, policy makers, or tourism related scholars to find effective strategies of revitalizing the old urban core in the future.

핵심용어 : 구도심 활성화, 보행자 전용지구, 이벤트, 관광테마거리

* 이 논문은 2000년 한국학술진흥재단의 지원에 의하여 연구되었음(KRF-2000).

** 배재대학교 관광문화대학 관광학부 교수로 재직 중이며, 관광이벤트 기획·평가, 관광상품개발, 이벤트산업 육성 및 정책에 관심있음. E-mail: jghon@mail.paichai.ac.kr

*** 충남대학교 건축공학부 교수로 재직 중이며, 도시계획, 도시건축, 지역개발에 관심 있음.
E-mail: ds_oh@hanbat.chungnam.ac.kr

I. 서론

1. 연구의 배경

오랜 기간 동안 경제성장을 거듭한 1970년대 이후부터 세계 각국의 대도시들에서는 많은 도시문제들이 발생하게 되었다. 그 중에서 가장 심각한 것이 인구와 각종 경제활동들이 구도심을 떠나 도시외곽으로 이동하게 되어 야기되는 구도심의 공동화 현상이다. 이러한 현상으로 인해 도시 중심부의 경제기반은 급속하게 약화되어 가고, 그로 인해 시정부도 도시의 각종 사회간접자본이나 기반시설을 유지 보수해 나가는데 게을리 하기 시작하였다. 도시 중심부의 실업률도 심각한 지경에 이르게 되었다. 경제적인 문제들을 제외하고도 구도심은 공해, 범죄문제, 교통혼잡 등 각종 사회환경문제에 휩싸이게 되었고 해결해야 할 많은 당면과제를 안게되었다. 이렇게 쇠퇴한 구도심이 당면한 과제들은 이제 세계 각국 도시들의 공통적인 문제가 되었고, 특히 국내의 경우 구도심의 쇠퇴현상은 상당히 심각한 상황으로 보다 근본적인 관점에서 도심활성화의 시책을 펴나가야 할 시기이다.

대전시의 경우, '93 엑스포 준비개발과 정부 제3청사 이전에 따른 둔산 지역 개발이 크게 부각되고 대전시청, 검찰청, 법원 등의 연쇄적 이전 등 행정과 중심업무 기능이 구도심에서 신시가지로 옮겨오며 따라 구도심 기능의 쇠퇴와 기존 질서의 변화가 가속화되었다. 보다 구체적으로 구도심의 경제활동은 신도심의 대형할인점과 백화점의 등장으로 인해 일부업종을 제외한 모든 업종이 지난 3년간('95-'97) 10%의 감소추세를 보이고 있다. 도심기반시설은 인구 60만내외의 도시가 지니고 있던 종래의 도시골격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어 매우 취약한 편이다. 또한 건축물의 용적율, 건폐율은 법적 허용기준 이하이며, 건축된 지 30년이 지난 노후한 건축물이 전체 연면적의 50%를 상회하는 등 구도심의 물리적 환경의 질 저하현상이 심각하다. 이로 인해 최근('90-'97) 도심지역의 인구증감율이 구도심에 위치한 동구와 중구가 각각 -2.08%, -1.08%의 감소추세인 반면, 신도심에 위치한 서구와 유성구는 각각 +15.57%, +11.28%의 증가현상을 보이고 있다. 따라서 구도심의 활성화가 시급하게 요구되고 있다. 그로 인하여 구도심 지역의 경제활동이 점차 침체되고 각종 도시문제의 야기와 낙후된 기반시설로 인한 침체가속화 현상이 나타나게 되었다. 이러한 상황이 널리 인식되면서 침체된 구도심을 재활성화하여 상권을 회복하고, 기존 도심지역으로 각종 문화공간 및 교육시설 등의 도시기반시설들을 유치하여

집적시키는 방안 등 도심의 재활용 문제에 관련한 많은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다.

구도심 공동화현상에 대한 대처방안을 모색함에 있어 건전한 도시발전으로 이끌기 위하여 이 문제를 보다 복합적으로 다룰 필요가 있다. 이와 같은 맥락에서 볼 때 일찍이 구도심부의 퇴락을 체험하고 구도심 활성화 전략을 통하여 성공을 거둔 경험이 있는 선진국의 사례를 살펴보는 일은 매우 의미 있는 일이 될 것이다.

1980년대 후반부에 세계적인 경제회복 무드와 함께 서유럽과 미국의 중심도시들이 도심을 재개발하고, 과거 중심기능을 부활하려는 움직임들이 과감하게 실행되었는데, 특히 산업도시와 항구도시를 중심으로 이러한 움직임이 크게 일어났다. 이러한 구도심 활성화 정책에는 도시재개발전략의 수법 중에서 보행자 공간의 확보와 함께 관광, 이벤트 전략이 비중 있게 포함되었다. 도심지역내에 보행자 전용 도로를 구획하고 이를 통해 소매상점을 활성화시키는 방안은 유럽, 미국 등의 선진국들이 구도심 쇠퇴와 도심공동화에 대처하기 위해 채택한 대표적인 수법으로서 침체된 구도심을 재생시킬 수 있는 바람직한 방안으로 인정받고 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접근한다면 구도심 활성화를 위한 접근방안(오덕성, 2000)은 ① 도심기능의 다양화와 상주인구 확보를 위한 복합용도개발 ② 물리적 환경개선 ③ 도심상권의 활성화 ④ 구도심의 정체성 확립 및 역사·문화적 전통이용 ⑤ 보행자전용의 동선체계와 공공교통위주의 계획체계인 선적재개발¹⁾로 요약될 수 있다. 도심 내 보행자전용지구의 설정은 이 중 선적재개발 전략의 일환으로써 선진국에서 1960~70년대 체험했던 구도심 쇠퇴와 공동화에 대처하기 위해 도입했던 대표적인 계획수법이다. 도심보행자전용지구 설정은 도심의 물리적 환경개선 뿐만 아니라 그 안에서 일어날 수 있는 다양한 활동을 수용함으로써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 이때, 도심상주인구확보, 소매업 활성화 등과 더불어 도시의 매력을 높이기 위한 활동의 일환으로써 이벤트를 통한 전략을 꾀할 수 있다(Harvey M. Rubenstein, 1992).

이벤트란 원래 지역에 활력을 불어넣고, 지역적 연대감을 공고히 함은 물론, 나아가서는 수익사업이나 상품의 정보전달, 다른 지역과의 차별화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도시정비사업 시에 반드시 고려되어야 할 사항이다.²⁾ 보행자

1) 이는 도심 내 보행자전용지구를 설정하여 물리적인 하부구조를 개선함으로써 보행 유동인구의 유입을 촉진시켜 공간의 생산성 증대 및 주변의 점진적이고 자발적인 토지이용의 변화를 유도하려는 방식으로 '보행인구의 증가=자본의 유입'이라는 호순환의 단서는 최초로 점과 선의 재개발을 통해 제공되는데, 이러한 기본 순환체계 외의 보행인구의 증가는 그 자체로서 또 다른 거리인구를 끌어들이는 하위 순환체계를 형성한다.

2) 조영준, "이벤트와 도시미운동", 대한건축학회지 『建築』1999.5

전용지구계획에서는 물리적인 계획과 더불어 거리에 생명력을 불어넣는 소프트웨어적인 요소로서 사람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는 감각적·정신적 측면에서 볼 때, 이벤트의 역할은 매우 중요하다. 또한 이러한 이벤트는 도시이미지 개선 및 경제적 효과(정강환, 1996), 도시의 질 향상과 도시정비의 효과(조영준, 1999), 도심환경의 질적인 측면에서 다양성 및 정체성 제공(Harvey M. Rubenstein, 1992) 등 여러 가지 지역활성화의 효과를 유발한다.

이러한 움직임과 아울러 관광산업은 최근 20, 30년간 급속하게 발전하였고, 관광객의 수나 관광객 지출이 빠른 속도로 증가하여 각 도시의 정부들은 적극적으로 관광기능을 도시에서 제공하여 경제효과를 높이는 기회에 대하여 크게 인식하게 되었다. 도심이 관광기능을 강화할 때 구도심과 주변지역에 경제적 활력을 줄 수 있다는 것을 확신하게 되었고, 도시의 각종 관광 여가 상품들을 적극적으로 개발할 때 도시의 미비한 환경여건도 개선되며, 도시생활의 질적 측면이 높아진다는 결론도 얻게 되었다.

그러므로 본 연구를 통하여 구도심 활성화 방안으로 모색될 수 있는 여러 가지 정책 대안 중에서 가장 현실적으로 수용할 수 있는 방안으로서 관광·문화이벤트와 도시계획의 보행자전용지구 측면의 3개 분야에 중점을 두어 연구해 보는 일의 해의 및 국내의 현실적인 여건을 감안해 볼 때 매우 의미 있는 일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본 연구는 관광·문화·이벤트 측면에서 본 도심활성화 방안을 제시하는 데에 연구의 주목적을 둔다. 구체적으로는 보행자 전용도로계획, 관광·문화·이벤트 관점의 전략에 초점을 맞추어 분야별 전략 방향을 제시하는 데에 연구의 목적을 둔다. 이를 위해 관광·문화이벤트 관점에서 구도심 활성화 사례와 구도심 지역의 보행자전용지구를 중심으로 성공한 사례조사를 하였고, 이를 국내에 적용키 위하여 현재 심각한 도심공동화 문제를 겪고 있는 대전 구도심 지역을 선택하여 활성화방안 수립을 위하여 구도심 지역의 주민들을 중심으로 한 대전 시민 대상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관광, 이벤트, 도시계획의 보행자전용지구 측면에서 구체적인 구도심 활성화 방안을 도출해 보고자 하였다.

2. 국내·외 연구동향 및 선행연구 고찰

도심공동화 연구와 관련된 사례들을 일부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도심공동화 문제가 체계적으로 논의되기 시작한 것은 영국인데, 영국에서는 도시들의 경제침체를 가장 중요한 현상으로 보고 인구나 고용감소, 그리고 주택과 기반시설의 노후화

측면에서 접근하고 있다. 도심공동화 대처방안 중의 하나로서 영국 에덴버러와 글래스고우 사례에서 문화관광개발, 이벤트, 축제 전략이 언급되는 특징을 제시할 수 있다(Berg *et al*, 1995). 미국에서는 교외화와 결부된 도심지역의 쇠퇴라는 관점으로 도심공동화의 문제에 대해 접근하고 있으며 일본에서는 도심지역에서의 상주인구 감소, 주상혼합지역에서의 파밀문제 측면에서 접근하고 있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아직 도심공동화의 문제에 대해 체계적으로 접근한 연구가 없으며 또한 도심지역의 쇠퇴와 파급효과에 관한 연구도 없는 실정이다. 이는 우리나라의 많은 도시들이 지속적인 성장만을 추구하고 동시에 도심공동화의 문제에 대해 간과한데 원인이 있으며, 더욱이 이러한 문제가 연구자들의 관심에서 제외된 것에서 기인했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구도심의 공동화 문제는 심각하게는 사회적인 문제로까지 대두되고 있으며 우리나라의 경우, 이러한 구도심 쇠퇴의 현상은 심각한 상황으로 보다 근본적인 관점에서의 도심활성화 방안의 시급한 마련과 함께 관련 시책을 펴나가야 할 시기이다. 특히 일부 서유럽의 성공사례연구들을 참고해 볼 때 구도심 활성화에 관광과 이벤트분야의 문화전략을 접목되었다는 연구경향을 주시해 볼 필요가 있다. 이러한 도심공동화 문제를 다룬 국내·외의 관련 연구들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도시계획 및 도시설계 측면에서 구도심 활성화 관련 연구

해외의 연구 중에서 도심공동화에 대한 문제를 지적하고 도시의 활성화 방안에 대해 기술하고 있는 연구에는 Jane Jacobs(1961)의 "The Death and Life of Great American Cities", Andy Coupland(1997)가 편집한 "Reclaiming The City", Taber Oc, Steven Tiesdell(1997)이 편저한 "Safer City Centres" 그리고 Jim Berry, Stanley McGreal, Bill Deddis(1993)의 "Urban Regeneration" 등이 있다. 그리고 이러한 도심공동화의 문제를 역사적 지구나 건축물의 보전 관점으로 논하고 있는 연구에는 Steven Tiesdell, Taner Oc, Tim Heath(1996)가 저술한 "Revitalizing Historic Urban Quarters"와 Peter J. Larkham(1996)의 "Conservation and The City" 등이 있다. 특히 보행자전용지구를 도입하여 구도심 쇠퇴의 해결책을 모색하는 저술로서 R. Brambilla, G. Longo(1977)의 "For Pedestrians Only"와 Harvey M. Rubenstein(1992)의 "Pedestrian Malls, Streetscapes, and Urban Spaces"를 들 수 있다.

국내에서는 구도심의 쇠퇴 문제에 관심을 두고 재활성화의 필요성을 주장하는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대전광역시의

기존도심 재활성화 방안에 관한 연구(1999), 그리고 오덕성, 강병주, 김혜천, 이건호의 도심공동화의 원인과 활성화 대책(2000)에서는 구도심의 쇠퇴의 원인과 문제제기를 통하여 구도심 활성화가 시급한 문제임을 다루고 있다. 그리고 이러한 도시의 쇠퇴 문제를 도시계획적 관점에 접근하여 해결방안을 모색해 보는 연구로는 오덕성의 기존 도시구조의 재정비와 건축의 방향(1996), 도시환경의 재생(1954), 그리고 독일의 구도심 재개발 계획(1995) 등이 있다. 특히 복합화 개발개념을 도입하여 도심쇠퇴의 문제를 극복해야 한다는 관점으로 도심공동화 문제를 다루는 연구에는 오덕성의 구도심의 공동화와 복합용도개발(1999)과 대전시 구도심 기능강화와 복합화의 도입(1998) 등의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다.

2) 관광·문화·이벤트 측면에서의 도시관광 및 구도심 활성화 관련 연구

해외의 관광분야의 연구에서 도시와 관광을 접목시킨 연구가 영국을 중심으로 1980년대 후반부터 나타나기 시작했는데, Ashworth(1989, 1990)의 "Urban Tourism: An Imbalance Attention"이나 "Selling the City: Marketing Approaches in Public Sector Urban Planning" 등이 있고 F. Vetter(1985)의 "Big City Tourism"가 대표 사례연구로서 주로 대도시의 관광에 중심을 두고 있다. 그와 동시에 네덜란드에서는 보다 구체적으로 도시내부에 초점을 두는 Jansen-Verbeke(1986, 1989)의 "Inner City Tourism, Resources, Tourists, and Promoters"나 "Inner Cities and Urban Tourism in the Netherlands"의 연구가 있고, 대도시 뿐 만 아니라 작은 산업도시에서도 관광이 적용되어진다는 보다 확대된 개념에서 구체적인 연구가 Buckley와 Witt(1989)의 "Tourism in Difficult Areas: Case Studies of Calderdale, Leeds, Manchester and Scunthorpe"로 나타나게 되었다. 도시와 숙박산업지의 위치적 관점을 조명한 G. Wall (1985)의 Point Pattern Analysis of Accommodation in Tronto 등도 있다.

도심활성화와 관광전략연구와 관련하여 도시관광의 전반적인 개념을 다룬 C. Law(1993)의 "Urban Tourism: Attracting Visitors to Large Cities"은 상당부분 도심활성화를 문화이벤트, 스포츠이벤트, 컨벤션, 전시행사 등의 이벤트전략으로 극복한 사례를 기술하고 있는 점에서 관광 소프트웨어(software)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고, Berg 등 (1995)은 서유럽의 도심활성화 8개 도시사례를 다양한 관점에서 소개하고 있다. 그리고 이들은 건물, 수변공원 중심의 관광개발 전략을 언급하고 있지만 영국 에덴버러와 글래스고우, 이태리 제노아 사례 등에서 축제와 대형이벤트 전략을 비중 있게 다루고 있다. 그밖에도 D. Getz(1992)는 "Festival, Special

Events and Tourism”에서 이벤트의 역할 중 도시지역개발효과를 특히 강조하고 있다.

국내의 도시관광연구는 전반적으로 매우 미진하다고 할 수 있는데, 1980년대 초부터 1990년대 초반까지는 주로 도시지역주민들의 관광태도나 도시관광개발계획에 대해 다루고 있다. 박석희(1990)의 “대도시 주민의 관광태도 측정에 관한 연구”, 김정만(1990)의 “An Analysis of Korean Residents' Attitudes toward Foreign Tourists”, 이길(1982)의 “대구지역 관광개발을 위한 연구”, 변재진의 도시관광개발 기본방향모색을 위한 연구 등을 예로 들 수 있다. 이후 1990년 말에 이르는 최근에는 도시관광의 전반적인 추세를 번역한 이후석(1999)의 『도시관광』 외에도 제주도나 경주시와 같은 관광도시를 소재로 하여 도시관광을 개발 또는 진흥시키고자 하는 전략방안연구가 외국의 도시관광이론과 접목하여 나타났는데, 양영근(1998)의 “제주시 도시관광개발의 방향과 전략”, 오상훈(1999)의 “제주시 도시관광발전정책에 관한 연구”, 하현국(1999)의 “역사관광도시론”이 대표적 사례이다. 도시관광을 보다 세부적인 주제로 나누는 연구들도 나타나게 되었는데 시티투어를 주제로 다룬 김시중과 이웅규(1999)의 “서울시티투어활성화를 위한 실증적 연구”, 대도시 관광도시 중심에서 지방중소도시차원의 관광전략을 다룬 신동주(1998)의 “지방중소도시 관광산업의 국제화전략: 춘천시를 중심으로” 등이 있다.

도심활성화와 관련한 관광학 분야의 논문은 극히 미비하다고 할 수 있으며, 관광축제와 대형이벤트가 도시지역활성화에 중요하다는 정강환(1995, 1996)의 “93년 엑스포 전후비교를 통한 대전시에 미친 관광영향연구”나 『이벤트관광전략: 축제와 지역활성화』 등이 있고, 타 분야 연구로서 문화관광분야와 관련이 있는 연구로서 도심지역 활성화 방안으로 부각된 문화의 거리 전략을 소개한 유병림(1995)의 “문화예술의 거리”나 오덕성(1994)의 “유성문화의 거리 조성 모델연구 및 기본계획” 등도 나타나게 되었다.

II. 연구방법

1. 연구범위

연구범위에 있어 조사하려는 대전 구도심 활성화 대상지로 대전광역시 중구와 동구지역의 구도심으로 지역적 범위를 한정하였고, 설문조사대상에 있어 동구와 중구지역 주민들을 중심으로 한 대전시민들을 대상으로 하였다.

2. 설문조사

설문조사의 설문지 구성을 위하여 관련 정부보고서, 서적, 논문, 정기간행물을 토대로 설문조사항목들을 설정하였으며, 주요조사항목들은 관광, 이벤트, 보행자지구측면에서 구도심 지역의 활성화 방안을 파악하기 위해 잠재가능한 27개의 설문조사변수를 설정하였다. 27개의 설문변수가 나타나게된 과정은 우선 제목과 관련된 활성화잠재변수를 모두 나열하는 과정이 여러 지역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일반적인 구도심 활성화 방안의 25개 항목을 각 문헌조사를 통해 나열하고, 대전에만 적용할 수 있는 활성화 특수항목(예: '성심당 빵'이 대전에는 특별한 의미가 있음.) 10여 개를 나열하여 총 35개 항목을 파악하고, 2차 작업으로서 그 중에서 중복되거나 의미해석에 문제가 있다고 보는 항목을 8개 제외하여 27개 항목으로 줄이게 되었다. 설정된 27개 변수를 각 문항에 대하여 7점(1-7)의 리커트 척도(seven-point Likert scale)를 이용하였다. 구도심 지역의 전반적인 문제점을 파악하기 위한 선택형 질문을 포함시켰고, 설문지의 뒷부분에 일반사항을 두어 인구 통계적 차이를 파악하기 위해 성별, 연령, 주거지역의 질문을 첨가하였다.

본 연구의 실증적 조사방법에 있어서 우선 대전광역시 동구와 중구지역의 구도심지역을 설문조사대상지역으로 설정하였고, 설문조사를 조사단이 구성되어 2001년 4월 한달 기간동안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실증조사는 중구와 동구 도심지역의 은행동 으능정이거리, 대전역, 대전대, 중구청, 충남대병원 등 5개 지역에 직접 파견되어 각각의 장소에서 설문조사를 실시하는 군집표본추출(Cluster Sampling)에 의한 19세 이상의 대전지역 주민들을 대상으로 하였다. 표본추출은 날짜별 시간 할당 및 대상지에 골고루 설문조사원 배치에 의해 시행하였으며, 자료수집은 도심지역의 유동인구를 대상으로 하는 설문조사라는 점을 감안하여 자답식(自答式)설

문기법(Self-administered questionnaire survey method) 및 인터뷰(Interview)에 의한 설문기재 방식을 병행하였다. 객관식 설문조사에 응답한 유효표본은 총 421 명으로 집계되었다. 설문조사에 응답한 유효표본에게서 모집된 자료는 컴퓨터에 입력되어 SPSS통계 프로그램을 통해서 분석하였다. 구체적인 통계기법으로는 여러 변수들의 그룹별 분류를 위해 요인분석(Factor Analysis)을, 구도심 활성화를 위한 관광특화거리(보행자전용지구) 방안 및 이벤트 프로그램을 파악하기 위하여 평균(Mean Score)을 이용하였고, 방문객들의 '연령'이라는 인구통계적인 변수의 설문응답 영향여부를 파악하기 위해 일원분산분석(One-way ANOVA)과 던컨테스트(Duncan Multiple Comparison Test)를 이용하였다.

III. 연구결과

1. 표본의 인구통계적 특성

대전광역시 중구, 동구 등 구도심 지역과 서구, 대덕구, 유성구를 포함하는 구도심 이외 지역의 만 18세 이상으로서 설문조사에 응답한 유효표본들의 인구통계적 특성을 <표 1>을 통해 살펴보면, 성별은 전체 남녀의 비율이 각각 50%에 가까운 구성비를 이루고 있다. 연령층은 만18세~24세의 고등학생 및 대학생 위주의 청년층층과, 만25세~39세의 일반인 위주의 청장년층, 그리고 만40세 이상을 위주로 한 장년층의 3개 그룹으로 나누었다. 이렇게 세 그룹으로 나누는 이유는 우선 설문에 유효성을 기하기 위해 성인 만18세 이상을 기준으로 보았다. 18~24세 까지를 나누는 이유는 대학생과 직장사회인 그룹을 나누는 보편적 기준으로 근거를 두었으며 성인학생층을 대표하는 그룹으로 보았습니다. 25~39세는 20대와 30대를 대표하는 그룹으로서 직장 사회인층을 근거로 두었습니다. 또한 중장년층에 대한 대표성을 기하기 위해서 40세 이상을 기준으로 두어 분리하도록 하였습니다. 세그룹 가운데 전체 청년층의 비율이 가장 높았으며, 청장년층, 장년층의 순으로 나타났다. 직업에 있어서 전체 응답자 중 대학생의 비율이 가장 높았으며, 사무직 종사자, 고등학생, 판매·서비스업 순으로 나타났다. 공무원과 생산직의 비율이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났다. 거주지는 연구대상지인 구도심지역(중구, 동구)의 비율이 57%로 나타났다.

<표 1> 표본의 일반적 특징

구분	구분	중 구		동 구		구도심 이외		전 체	
	내 용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성별	남 자	52.8%	65	48.2%	54	56.1%	101	53.0%	222
	여 자	47.2%	58	51.8%	58	43.9%	79	47.0%	197
	계 (시스템 결측값 제외)	100%	123	100%	112	100%	180	100%	419
나이	18 ~ 24세	40.8%	49	40.9%	45	38.4%	68	39.7%	163
	25 ~ 39세	33.3%	40	36.4%	40	33.3%	59	34.0%	140
	40세 이상	25.9%	31	22.7%	25	28.3%	50	26.3%	108
	계 (시스템 결측값 제외)	100%	120	100%	110	100%	177	100%	411
직업	대학생	31.5%	39	38.1%	43	22.2%	40	29.5%	124
	주 부	12.9%	16	6.2%	7	5.0%	9	7.6%	32
	고등학생	12.1%	15	7.1%	8	14.4%	26	11.6%	49
	사무직	11.3%	14	17.7%	20	18.3%	33	15.9%	67
	상 업	9.7%	12	6.2%	7	7.8%	14	7.8%	33
	판매, 서비스업	9.7%	12	11.5%	13	11.1%	20	10.7%	45
	기 타	5.6%	7	7.1%	8	11.1%	20	8.6%	36
	전문직	4.0%	5	4.4%	5	6.1%	11	5.0%	21
	공무원	2.4%	3	-	-	1.8%	3	1.4%	6
	생산직	0.8%	1	1.7%	2	2.2%	4	1.9%	8
	계 (결측값 제외)	100%	124	100%	113	100%	180	100%	421
	거주지 (결측값 제외)	29.7%	124	27.3%	114	43.0%	180	100%	418

2. 구도심 활성화 방안들의 多側面的 분류

관광, 이벤트, 보행자지구측면에서 구도심 지역의 활성화 방안을 주민들의 지각 유형에 의한 다측면적인 관점에서 파악하기 위해 요인분석의 주성분 분석을 이용하였고, 요인적재치의 단순화를 위하여 직각회전을 실시하여 6개의 요인들을 도출하였다. 요인분석의 이용목적이 다측면적 분류(多側面的 分類)에 있었으므로 요인수를 제한하려는 시도를 하지 않았다. 6개요인들은 전체분산의 61.06%를 설명하였다.

〈표 2〉 구도심 활성화 방안들의 다측면적 분류

요인/변수	요인적계치	아이겐 값	분산비율 (V.A.F)
요인 1: 역사문화관광상품추진			
단체 신채호를 주제로 관광상품화	0.800	8.619	31.923
사육신 박팽년을 주제로 관광상품화	0.796		
항일운동사 활용 역사체험축제 개발	0.720		
우암 송시열을 주제로 관광상품화	0.703		
민속놀이 활용 민속체험축제 개발	0.626		
뿌리를 찾는 관광코스 (회상사 족보박물관)	0.501		
골동품 상가를 활용 관광상품화	0.358		
요인 2: 관광테마거리화(보행자친용지구)추진			
대진역 주변 한의약거리의 관광테마거리화	0.811	2.250	8.332
부사동 인삼·약초거리 관광테마거리화	0.744		
원동 한복거리를 관광테마거리로 개발	0.720		
중구청 필방/서예 거리의 테마관광지화	0.696		
삼성동 인쇄거리의 관광테마거리 개발	0.512		
중앙 재래시장을 관광테마시장으로 개발	0.496		
동구청 책방거리의 관광테마거리화	0.424		
요인 3: 구도심 명소 관광상품화추진			
충남도청 등 근대건축물 활용 관광상품화	0.685	1.919	7.108
성심당 등 빵을 이용한 관광상품 개발	0.648		
한밭교육박물관의 관광상품화	0.537		
인쇄거리, 교육박물관 연계 출판문화축제	0.374		
요인 4: 음식거리 특화추진			
오류동 전통음식거리의 관광테마거리화	0.827	1.326	4.910
선화동 전문음식거리의 관광테마거리화	0.813		
홍명상가 주변 먹거리축제 개발	0.452		
요인 5: 문화예술관광상품화추진			
지역 문화, 예술공연 시설 활용 관광상품화	0.865	1.269	4.701
각종 문화예술단체 활용 문화관광상품화	0.805		
대전문화예술축제 개발	0.358		
요인 6: 패션거리 특화추진			
대전 패션상가 밀집지역의 관광특화	0.806	1.103	4.086
은행동 젊음의 거리를 관광테마거리화	0.677		
은행동 패션 및 의류를 이용한 축제개발	0.587		

관광, 이벤트, 보행자지구추진에서 구도심지역 활성화 방안과 관련된 28개 변수들을 요인분석에 의해 6가지 다측면으로 분류했다. 6개의 도출된 요인은 역사문화

관광상품측면, 관광테마거리화(보행자전용지구)측면, 구도심 명소 관광상품화, 음식거리특화측면, 문화예술관광상품화측면, 패션거리특화측면으로 파악되었다.

요인 1 : 역사문화관광측면

〈표 3〉 역사문화관광측면의 연령에 따른 일원분산분석결과

변 수	전체 평균	청년층	청장년층	장년층	F값	유의 수준	던컨검정
뿌리찾는관광코스(회상사족보박물관)	5.04	4.90	4.93	5.40	4.175	0.016	Y,M,O
민속놀이 활용 민속체험축제 개발	4.90	4.93	4.86	4.90	0.073	0.929	
골동품 상가를 활용 관광상품화	4.78	4.73	4.55	5.18	5.820	0.003	Y,M,O
항일운동사 활용 역사체험축제 개발	4.77	4.64	4.73	4.97	1.673	0.189	
우암 송시열을 주제로 관광상품화	4.69	4.44	4.68	5.02	5.486	0.004	Y,M,O
단계 신채호를 주제로 관광상품화	4.63	4.40	4.63	4.94	5.139	0.006	Y,O
사육신 박팽년을 주제로 관광상품화	4.60	4.45	4.54	4.89	3.496	0.031	Y,M,O

던컨 복수범위검정

Y: 청년층 (24세이하)평균 M: 청장년층(25-39세)평균 O: 장년층(40세이상)평균

〈표 3〉에서 역사문화관광측면은 관광, 이벤트, 보행자지구측면에서 구도심 지역의 활성화 방안을 설명하는 가장 중요한 요인으로 분석되었고, 7개의 활성화 가능방안이 포함되었다. 7점척도의 응답평균을 비교한 결과 〈표 3〉에서 보는 바와 같이 역사문화관광상품화 측면에서 가장 높은 반응을 얻은 구도심 활성화 방안은 '회상사 족보박물관 등과 연계한 뿌리를 찾는 관광코스 개발 (평균 5.04) 로 파악되었다. 이러한 결과를 연령대상으로 나누어 볼 때 40대 이상의 장년층의 5.40이라는 매우 높은 반응에 의한 것으로 분석되며, 20대의 청년층과는 유의한 차이를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두 번째로 높은 반응을 보인 방안은 '부사칠석놀이, 문창동 옛 장수놀이 등 중구지역의 민속놀이를 활용한 민속체험축제를 개발하는 것'(평균 4.90) 으로 연령층에 관계없이 고른 반응을 보인 것이 역사문화관광측면의 변수들 가운데 이례적인 특징으로 나타났다. 역사문화관광측면에서의 변수들은 전반적으로 장년층의 높은 반응에 의해 제안되어진 것들이며 젊은 층들은 상대적으로 낮은 반응들을 보인 것으로 대조를 이루었다.

요인 2 : 관광테마거리화(보행자전용지구)측면

〈표 4〉 관광테마거리화(보행자전용지구)측면 연령에 따른 일원분산분석결과

변 수	전체 평균	청년층	청장년층	장년층	F값	유의 수준	던컨검정
중앙 재래시장	5.02	4.85	5.10	5.20	2.059	0.129	
원동 한복거리	4.98	4.84	4.83	5.43	6.087	0.002	Y,M<O
부사동 인삼·약초거리	4.96	4.64	5.01	5.42	9.345	0.000	Y<M<O
중구청 필방/서예거리	4.93	4.74	4.85	5.38	6.809	0.001	Y,M<O
대전역 주변 한의약거리	4.91	4.48	4.90	5.64	24.412	0.000	Y<M<O
동구청 주변 책방거리	4.81	4.67	4.90	4.96	1.474	0.230	
삼성동 인쇄거리	4.26	4.10	4.22	4.59	3.905	0.021	Y,M<O

던컨 복수범위검정

Y: 청년층 (24세이하)평균 M: 청장년층(25-39세)평균 O: 장년층(40세이상)평균

27개의 변수들 가운데 보행자전용지구의 개념에 근거를 둔 관광테마거리화 측면에 구도심 활성화 방안들은 7개로 나타났다. 〈표 4〉에서 구도심 활성화로서 가장 잠재성이 큰 방안은 평균치 5.02를 기록한 '중앙재래시장을 관광테마시장(거리)로 개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앙재래시장과 관련해서는 재래시장(대전광역시에 89개, 중구에 19개) 활성화가 대전시 구도심 활성화의 주요사업으로 볼 때 본 조사를 통해서도 일치된 의견이 표출되었다고 볼 수 있다. 특화거리관점에서 잠재성이 높은 방안으로 '원동 한복거리'와 '부사동 인삼약초거리'를 관광테마거리로 개발시킨다는 방안으로서 도출되었는데, 주요 이유는 설문대상그룹 중 장년층의 5.40이 넘는 청년층 그룹에 비해 유의하게 높은 응답치 때문인 것으로 파악되었다. 그러나 삼성동 인쇄거리를 관광테마거리로 개발하지는 방안에 대해서는 4.26이라는 매우 낮은 반응이 도출되어 구도심 활성화 방안으로 적절치 못한 것으로 해석되었다.

요인 3 : 구도심 명소 관광상품화측면

〈표 5〉 구도심 명소 관광상품화측면 연령에 따른 일원분산분석결과

변 수	전체 평균	청년층	청장년층	장년층	F값	유의 수준	던컨검정
성심당 빵을 이용한 관광상품 개발	4.78	4.94	4.85	4.42	3.873	0.022	Y,M>O
한밭교육박물관의 관광상품화	4.72	4.52	4.71	4.96	2.631	0.073	
인쇄거리, 교육박물관 출판문화축제	4.69	4.10	4.22	4.59	3.905	0.021	Y,M<O
충남도청 등 근대건축 관광상품화	4.62	4.64	4.62	4.58	0.056	0.945	

던컨 복수범위검정

Y: 청년층 (24세이하)평균 M: 청장년층(25-39세)평균 O: 장년층(40세이상)평균

〈표 5〉에서 보듯이 세 번째로 파악된 구도심 명소 관광상품화측면은 구도심 지역의 유명한 명소들을 중심으로 한 4개 변수들(한밭교육박물관, 성심당, 인채거리, 충남도청)이 분류되었으나, 평균치를 비교함에 있어 다른 요인(측면)들 속의 변수들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낮은 평균치를 기록하여 구도심 활성화방안으로 크게 부각되는 변수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4개의 변수들 가운데서는 '지역에 유명한 빵 가게인 성심당의 빵을 이용한 관광상품개발'이 상대적으로 높은 평균치를 나타냈다. 이러한 결과는 설문층의 연령대에 의한 비교에서 성심당이 청년층에게 인지도가 높은 이유로 인해서 장년층보다 유의하게 높은 평균치를 기록한 것이 분석원인으로 파악되었다.

요인 4: 음식거리특화측면

〈표 6〉 음식거리특화측면의 연령에 따른 일원분산분석결과

변수	전체 평균	청년층	청장년층	장년층	F값	유의 수준
오류동 전통음식거리 관광테마거리화	4.94	5.08	4.79	4.87	1.532	0.217
홍명상가 주변 먹거리축제 개발	4.85	4.94	4.82	4.75	0.596	0.552
선화동 전문음식거리 관광테마거리화	4.73	4.78	4.62	4.75	0.454	0.635

요인 2에서 나타난 관광테마거리특화측면과 매우 흡사하면서도 주민들의 지각패턴에 의해 커다란 테마로 구분이 되는 측면이 음식거리로 특화하는 측면이라고 할 수 있다. 〈표 6〉에서 음식거리특화측면에서 3가지 변수가 분류되어 나타났으며 가장 높은 반응을 보인 구도심 활성화방안은 "오류동 음식거리를 관광테마거리로 개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요인 5 : 문화예술관광상품화측면

〈표 7〉 문화예술관광상품화측면의 연령에 따른 일원분산분석결과

변수	전체 평균	청년층	청장년층	장년층	F값	유의 수준
지역문화, 예술공연 시설활용 관광상품화	5.48	5.62	5.49	5.27	2.060	0.129
대전문화예술축제 개발	5.22	5.31	5.18	5.06	1.183	0.307
각종 문화예술단체 활용 문화관광상품화	5.19	5.09	5.17	5.36	1.395	0.249

다섯번째로 분류된 <표 7>의 문화예술관광상품화측면은 3개의 구도심 활성화 변수가 포함되었다. 요인분석을 통해 도출된 6개 측면들 중 지역주민들로부터 설문반응도가 전반적으로 가장 높고, 3개의 변수들 모두 평균치 5.2의 수준이나 그이상의 수치를 기록하여 구도심 활성화 전략으로서 중요한 부분으로 해석되었다. 문화예술관광측면 뿐 만 아니라 전체 27개의 변수들 가운데서 가장 높은 평균치(5.48)를 기록한 구도심 활성화방안은 “지역의 극장가, 대학공연장 등의 문화예술 공연시설을 활용한 문화관광상품을 개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항목에 대하여 설문대상의 연령대별 유의한 차이도 도출되지 않아 모든 그룹이 크게 공감하는 구도심 활성화를 위한 핵심방안으로 해석되었다. 이벤트개발관점에서 ‘문화예술의 거리에서 대전문화예술축제를 개발하는 것’(평균 5.22)과 ‘연극극단이나 시립합창단 등 각종 지역문화예술단체를 활용한 문화관광상품을 개발하는 것’(평균 5.19)도 매우 높은 반응을 얻은 구도심 활성화 방안으로 파악되었다.

요인 6 : 패션거리 특화측면

<표 8> 패션거리 특화측면의 연령에 따른 일원분산분석결과

변 수	전체 평균	청년층	청장년층	장년층	F값	유의 수준
은행동 젊음의 거리를 관광테마거리화	5.42	5.50	5.34	5.36	0.549	0.578
은행동 패션 및 의류를 이용한 축제	5.07	5.09	5.01	5.06	0.136	0.873
대전 패션상가 밀집지역의 관광특화	5.00	4.95	4.98	5.11	0.399	0.672

마지막으로 분류된 패션거리 특화측면은 요인분석을 통해 3개의 패션관련 구도심 활성화 변수가 포함되었고, 앞서 언급된 문화예술관광상품화측면처럼 전반적으로 설문응답의 반응도가 높아 중요한 구도심 활성화 전략으로 파악되었다. 전체 27개 변수가운데 두 번째로 높은 평균치(5.42)를 기록했으면서 패션거리 특화측면에서 가장 높은 반응도를 나타낸 항목은 ‘은행동 으능정이 젊음의 거리를 관광테마거리

리로 개발하는 방안으로 으능정이 거리는 실지 패션상가들이 주류를 이루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그 외에도 패션의류축제개발 및 대전패션상가 밀집지역(멜리오, 엔비백화점 등)을 관광특화 방안들도 모두평균 5.00이상의 높은 반응으로 주요한 구도심 활성화 방안으로 파악되었다. 설문대상의 연령대별 그룹에 의한 유의한 차이가 도출되지 않아 공통적으로 공감대를 이루는 사항으로 해석되었다.

K C I

IV. 결 론

최근 도시공동화현상은 도시공간구조의 다핵화에 따라 상주인구의 이동 뿐 아니라 도심의 업무·상업기능의 이탈에 따른 유동인구의 감소를 초래하고, 전통적인 개념의 인구 공동화와 더불어 구도심 기능의 쇠퇴와 함께 기존 시설의 물리적 노후화를 동반함으로써 복합적인 문제를 야기하고 있다. 이렇게 쇠퇴한 구도심이 당면한 과제들은 이제 세계 각국 도시들의 공통적인 문제가 되었다. 이러한 구도심 공동화 현상을 극복한 선진국 도시들의 사례를 살펴볼 때 보행자 공간의 확보와 함께 관광, 레크리에이션(recreation), 이벤트 전략이 비중 있게 포함되었다.

경제적 생산적 기능이 약한 도시의 경우 구도심 침체를 극복하는 전략으로서 과거의 역사문화상품을 재정비하거나, 축제/이벤트 같은 관광소프트웨어를 적극 개발시켰다는 점이다. 영국 에덴버러의 과거 유적 및 박물관을 재정비하고, 국내에서는 소비 낭비적으로 보는 문화축제 등을 다양하게 개발 관광 상품화하여 도심에서 개최되는 축제들만을 보러 오는 국내의 관광시장을 창출하는 성공사례를 보였다는 점이다. 특히 축제개발에 있어서도 도시중심부의 역사자원인 에덴버러 성(城)을 활용한 스코틀랜드 군악대축제를 개발하여 약 500억 원에 가까운 지역경제파급효과를 나타냄으로서 문화관광을 통한 새로운 관점의 도심활성화 전략을 보여주었다는 것이다.

또 한가지의 선진국 도시들 가운데 나타나는 구체적인 구도심 활성화 전략으로 '문화의 거리' '문화관광의거리'를 조성한다는 점이다. 보행자전용거리 조성으로 교통혼잡문제 해소와 활력 있는 문화이벤트 연계로 전개되는 문화의 거리를 통한 구도심 활성화 전략은 독일 뮌헨의 카우핑거 거리나 오스트리아 비엔나의 케르트너 거리 사례에서 효과가 입증되었다.

대전시의 경우, '93 엑스포 준비개발과 정부 제3청사 이전에 따른 둔산 지역 개발이 크게 부각되고 대전시청이전 등 행정과 중심업무기능이 구도심에서 신시가지로 옮겨옴에 따라 중국과 동구지역의 구도심 지역의 쇠퇴와 기존 질서의 변화가 가속화되었다. 그로 인하여 구도심 지역의 경제활동이 점차 침체되고 각종 도시문제의 야기와 낙후된 기반시설로 인한 침체가속화 현상이 나타나게 되었다.

본 연구는 현재 심각한 도심공동화 문제를 겪고 있는 대전 구도심 지역을 선택하여 활성화방안 수립을 위하여 구도심 지역의 주민들을 중심으로 한 대전시민 대상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관광, 이벤트, 도시계획의 보행자전용지구 측면에서 구체

적인 구도심 활성화 방안을 도출해 보고자 하였다. 본 연구의 분석결과를 간추려 결론을 내리면 다음과 같다.

첫째, 관광, 이벤트, 보행자지구측면에서 대전광역시의 중구와 동구를 중심으로 한 구도심 지역의 활성화 방안들과 관련된 28개 변수들을 6가지 세부측면으로 분류하여 구도심 활성화 전략의 체계성을 갖도록 하였다. 6개의 도출된 요인(측면)은 역사문화관광측면, 관광테마거리화(보행자전용지구)측면, 구도심 명소 관광상품화, 음식거리특화측면, 문화예술관광상품화측면, 패션거리특화측면으로 파악되었다. 그중 역사문화관광측면, 관광테마거리화측면, 구도심 명소 관광상품화측면, 문화예술관광상품화측면 등은 비교적 넓은 의미를 포괄하는 요인들로서 다양한 변수들이 포함된 반면, 음식거리특화측면이나 패션거리특화측면은 매우 구체적인 요인들로서 세부적으로 유사하고 공통성이 높은 변수들끼리 그룹화 된 특성이 있다.

둘째로, 전체 6개 측면들 중 대전지역주민들로부터 설문반응도가 전반적으로 가장 높아 대전 구도심 활성화 전략으로서 가장 중요하게 해석된 것은 '문화예술관광상품화측면'으로 분석되었다는 점이다. 보다 구체적인 방안으로 '지역의 극장가, 대학공연장 등의 문화예술공연시설을 활용한 문화관광상품을 개발하는 방안'은 문화예술관광측면 뿐 만 아니라 전체 27개의 구도심 활성화 잠재변수들 가운데서 가장 높은 평균치(5.48)를 기록한 구도심 활성화 핵심방안으로 파악되었다. 이 항목에 대하여 젊은층, 장년층에 관계없이 모든 그룹이 크게 공감하고 있다는 점에 중요성이 높다. 그 외에도 '문화예술의 거리에서 대전문화예술축제를 개발하는 방안'과 '연극극단이나 시립합창단 등 각종 지역문화예술단체를 활용한 문화관광상품을 개발하는 방안'이 매우 높은 평균치를 기록한 것으로 파악되었다.

셋째, 구도심 활성화 방안을 찾는 본 연구에서 설문대상의 '연령'이라는 변수에 의해 의견차이를 보인 측면들이 다수 나타났다. 특히 역사문화관광측면에서는 40대 이상의 장년층들이 높은 반응을 보인 것으로 분석되었는데, '회상사족보박물관을 연계한 뿌리를 찾는 관광코스개발'이나 '골동품상가를 활용한 관광상품화'에서 장년층들이 타 젊은층들에 비해 유의하게 높은 반응을 보인 것으로 파악되었다. 관광테마거리화측면에서 원동한복거리, 부사동 인삼약초거리, 중구청 필방/서예거리 등을 관광화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장년층의 반응이 유의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에 청년층에 반응이 유의하게 높은 경우는 '지역에 유명한 빵가게인 성심당을 관광상품화'하는 방안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점들은 관광측면의 구도심 활성화 방안으로서 상품화되었을 때 핵심 대상층이 "누가 될 것인가?"를 암시하는 시사점이기도 하다는 추측을 할 수 있다.

넷째는 각종 관광코스개발, 문화, 예술, 이벤트로 대표되는 소프트웨어적인 측면에서 구도심 활성화방안을 찾고자 한 점이 중요하게 나타났다는 점이다. 구체적으로 본 논문에서는 구도심활성화와 관련 기존의 도시재개발 및 설계차원의 시설위주의 '하드웨어'적 중심시각에서 벗어나 관광과 문화, 이벤트를 통한 구도심 활성화 등의 '소프트웨어'적 시각에도 균형 있게 무게를 둔 점이 주요했으며, 다양한 방안 모색에 기여했다는 점이다. 예를 들면 '문화예술의 거리에서 대전문화예술축제를 개발하는 방안', '뿌리 찾는 관광코스개발', '지역문화예술단체를 활용한 문화관광상품을 개발하는 방안', '민속놀이 활용한 민속체험축제개발' 등의 방안들이 구도심 활성화 방안으로 높은 평균치를 기록하였다는 점이다. 이러한 점은 특히 경제적 재원에 한계가 있는 도시들의 경우 도시재개발전략으로 소자본을 투여하여 높은 효과를 거둘 수 있는 관광 및 이벤트 전략을 소개하여 지방화시대 자원조달의 한계가 있는 여러 지방자치단체에 구도심 활성화 전략 수립에 효과적이며 다양한 시각을 제공하는데 의미가 있을 수 있다.

이러한 결론과 시사점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는 몇 가지 한계점을 가지고 있다. 우선 연구의 잠재적인 구도심 활성화 방안으로서 보다 여러 각도에서 매우 다양한 변수들이 나열될 수 있으나, 관광 및 이벤트적 측면에 국한된 아쉬움이 있으며, 또한 이 연구는 대전 구도심이라는 특정한 지리적 환경적 상황을 바탕으로 한 연구 결과로서 모든 도시의 구도심 연구에 일반화하기는 어렵다는 점이 있다. 끝으로 구도심 활성화 방안의 잠재성과 중요성 방안모색의 체계성을 갖는데 본 연구의 결과들이 기여할 수 있으나, 보다 구체성을 가지기 위해서는 후속연구로서 이어져 연결되어졌으면 한다. 예를 들면 음식특화거리의 경우도 후속연구를 통해서 '전화동'이나 '오류동'의 전문음식거리가 각각 탕류와 국수류 등의 전문화 아이টে임을 정하고 효과적으로 홍보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는 연구가 일례가 될 것이다.

참고문헌

- 김시중·이용규(1999). 서울시티투어 활성화를 위한 실증적 연구. 『관광경영학연구』, 제5호, 관광경영학회.
- 김정만(1990). An analysis of Korean residents' attitudes toward foreign tourists - Kyongju case. 『여가생활연구』, 창간호, 경기대학교.
- 박석희(1990). 대도시주민의 관광태도 측정에 관한 연구. 『여가생활연구』 창간호, 경기대학교.
- 신동주(1998). 지방중소도시 관광산업의 국제화 전략 : 춘천시를 중심으로. 『관광학연구』

22권 2호: 173~178.

- 양영근(1998). 제주도 도시관광개발의 방향과 전략. 『21세기 관광산업과 제주관광의 미래』, 제주대 관광산업연구소.
- 오덕성(1994). 『유성문화의 거리 조성 모델연구 및 기본계획』, 대전광역시.
- 오덕성(1995). 도시환경의 재생. 대한건축학회 『건축』, 제 39권 제 7호: 28~35, 대한건축학회.
- 오덕성(1995). 독일의 구도심 재개발 계획. 『한국건축가협회지 건축가』, 제155호: 51~56, 한국건축가협회.
- 오덕성(1996). 기존 도시구조의 재정비와 건축의 방향. 『월간 플러스』, 제113호: 146~151, 플러스문화사.
- 오덕성(1998). 대전시 구도심 기능강화와 복합화의 도입. 『지역개발논총』 제 10집: 7~30, 충남대학교 지역개발연구소.
- 오덕성(1999). 구도심의 공동화와 복합용도개발. 『대전건축사』 통권 제17호: 20~23, 대한건축사협회 대전광역시 건축사회.
- 오덕성, 강병주, 김혜천, 이건호(2000). 도심공동화의 원인과 활성화 대책. 『도시정보』, 통권 215호: 3~15, 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
- 오상훈(1999). 제주도 도시관광 발전정책에 관한 연구. 『동아시아 연구논집』, 제 9집, 제주대학교 동아시아연구소.
- 유병립(1995). 『문화예술의 거리』, 문화체육부.
- 이 길(1982). 대구지역의 관광개발을 위한 조사연구. 『대구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이후석(1999). 『도시관광』, 서울: 백산출판사.
- 정강환(1996). 『이벤트관광전략: 축제와 지역활성화』, 서울: 일신사.
- 정강환(1995). '93대전엑스포 전후비교를 통한 대전시에 미친 관광영향연구. 『관광학연구』 제19권 1호: 125~154, 한국관광학회.
- 하현국(1999). 『역사도시관광론』, 경주문화연구소.
- Andy Coupland (1997). Reclaiming The City, E & FN Spon.
- Ashworth, G.J. (1989) Urban tourism : an imbalance in attention. In C.P. Cooper(ed.) Progress in Tourism, Recreation and Hospitality Management. London: Bellhaven.
- Ashworth, G.J. and Voogd, H. (1990) Selling the City: Marketing Approaches in Public Sector Urban Planning. London: Belhaven.
- Berg L., Borg J., Meer J. (1995). Urban Tourism: Performance and strategies in eight European Cities, Aldershot: Avebury Publishing.
- Buckley, P. J. and Witt, S. F. (1989). Tourism in difficult areas: case studies of

- Calderdale, Leeds, Manchester and Scunthorpe. *Tourism Management*, 10: 138~152.
- Getz, D. (1991b). Festivals, special events and tourism. In D.E. Hawkins and J.U.B. Ritchie (eds) *World Travel and Tourism Review*, Vol.1 : 183~184. Wallingford: CAB International.
- Harvey M. Rubenstein (1992). *Pedestrian Malls, Streetscapes, and Urban Spaces*, John Wiley & Sons, Inc.
- Jane Jacobs (1992). *The Death and Life of Great American Cities*, VINTAGE
- Jansen-Verbeke, M. (1986). Inner city tourism, resources, tourists, and promoters. *Annals of Tourism Research*, 13 : 79~100.
- Jansen-Verbeke, M. (1989). Inner Cities and urban tourism in the Netherlands: new challenges for local authorities. In P. Bramham et al. (eds) *Leisure and Urban Processes*. London: Routledge.
- Jim, B., Stanley, M., and Deddis (1993). *Urban Regeneration*, E & FN Spon
- Law, C. (1994). *Urban Tourism: Attracting Visitors to Large Cities*, London: Cassell Publishing.
- Scottish Tourist Board (1992). *Edinburgh Festivals Study 1990-1992: summary*. Edinburgh: Scottish Tourist Board.
- Steven Tiesdell, Taner Oc, and Tim Heath (1996). *Revitalizing Historic Urban Quarters*, Architectural Press.
- Taner Oc and Steven Tiesdell (1997). *Safer City Centres*, Paul Chapman Publishing Ltd.
- R. Brambilla, G. Longo(1977). 보행자공간 기문당
- Vetter, F. (1985). *Big City Tourism*. Berlin: Reimer Verlag.

2002년 2월 5일 원고 접수 · 2002년 6월 5일 최종 수정본 접수
3인 익명심사 畢